

“안전한 세상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제8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개최, 총 141명 수상



지난 7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10여명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입장한다. 이 아이들은 제8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의 수상자들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을 확립시켜주고자 지난 2004년부터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00여점의 그림들이 접수된 가운데, 총 3차 심사에 걸쳐 141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 안전모를 집으로 표현한 작품부터 산업현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친진난만하게 표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보였다.

실제로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작들의 전시회도 열렸는데, 안전관계자들 대부분은 어린이들의 참신한 작품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한정된 소재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해냈다”라며 “평상시 안전하면 경직된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린이들의 작품을 보고 안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분별 대상은 임기현 군(유치부), 차한빛 양(초등학교 저학년부), 구도형 군(초등학교 고학년부) 등이 각각 수상했다. 금상은 서지민 양, 정유림 양, 박영서 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중 총 11명이 참여, 협회 이병천 회장직무대행으로부터 상장과 장학금, 꽃다발 등을 수여받았다.

▶ 구도형-초등부 고학년 대상



아버지가 쓴 안전모가 우리가족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조금은 열떨만한 기분이 듭니다.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다치시면 우리와 같은 가족들은 매우 슬플 것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인규-초등부 고학년 은상



길을 가다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건물 위로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자주 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모와 안전화는 미리 준비해두시고, 일하실 때에는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포스터가 산업현장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상을 계기로 저도 안전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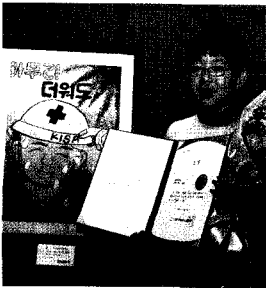
▶ 정유림-초등부 저학년 금상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시상식에 참석한 시간 모두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저씨들에게 안전모는 가족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안전모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강현진-초등부 저학년 동상



상을 받게 된다고 처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떨 듯이 기쁩니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모는 일할 때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땀이 난다고 벗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 점을 모든 아저씨들께서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범진-유치부 은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아저씨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시는 아저씨들도 위험한 곳에는 가지마시고 안전한 곳에서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빈-유치부 동상



엄마와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안전이 꼭 생각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를 다닐 때나 자전거를 탈 때 꼭 안전수칙을 지키겠습니다. 상을 주신 아저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을 주신 아저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 한국미술협회 김종수 화백



제8회 2011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저학년부 경우 생활 속 각종 사고를 친진난만하고 재치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고, 초등부 고학년부는 입체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안전의 모습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안전의식을 확립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